

OPEC의 原油價格 결정 메커니즘과 展望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長)

I. 머리말

그 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해온 국제원유가격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노르웨이의 공식가격인하로 시작된 油價인하 경쟁은 英國, 나이지리아의 油價인하를 가져옴으로써 그 파문은 OPEC를 비롯한 국제석유시장 전체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油價인하는 지난 7월의 現物油價 약세와 그동안의 石油구매자들의 油價인하압력과 계속된 공급과잉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OPEC회원국들은 현재의 배럴당 29달러의 공식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제네바에서 特別石油相會議議를 소집, 산유할당량을 1천 7백50만B/D에서 1천 6백만B/D로 감축기로 합의했으나, 산유량 감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국제원유가격의 불안요인은 계속 尙存할 것으로 예상된다.

OPEC회원국들의 산유량감축합의는 적어도 연쇄적인 油價인하러시와 공식가격의 재조정으로까지 번지는 사태를 일단 저지했다. 그러나 現油價體系의 유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減産의 配分이 합의되고 준수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회원국 사정으로 보아 대폭감산이 어려운데다 다소 감산의 여유가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쿠웨이트등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경기침체와 재정부족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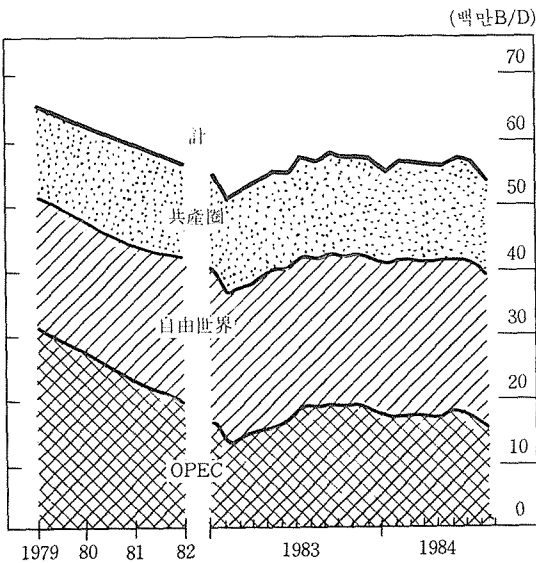
나이지리아는 물론이고 교전중인 이란·이라크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오히려 産油쿼터를 늘려야 할 형편이다. 더우기 英國, 노르웨이, 멕시코 등 非OPEC 산유국들의 減産에 대한 공동보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OPEC의 감산효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동요를 계기로 OPEC의 가격결정메커니즘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II. 油價引下の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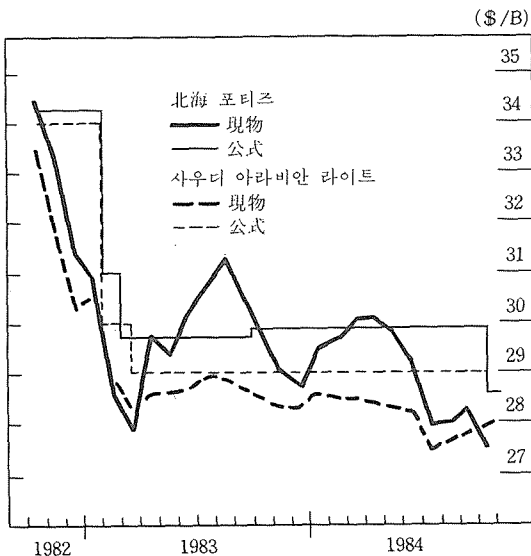
原油價格의 변화구조를 보면, 지난 70년대의 독과점적 OPEC 카르텔 가격구조에서 80년대에는 시장가격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原油 판매형태도 장기계약거래에서 단기적인 現物市場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요인은 ① 세계 석유

〈그림 - 1〉 世界原油 생산추이



〈자료〉 BP

〈그림 - 2〉 原油價格 추이



〈자료〉 BP

수급구조의 변화, ② 석유거래형태 및 판매주체의 변화 ③ 정제시설의 고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석유수급구조의 변화를 보면, 공급면에서는 두차례에 걸친 油價 폭등으로 원유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어 北海, 알라스카 등 비교적 생산비가 높은 油田의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非OPEC 산유

국의 산유량이 계속 증가되었고, 수요면에서는 소비국들의 에너지소비절약, 代替에너지개발·이용의 증가 등으로 石油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지고 소득탄력성은 낮아지게 되었다.

한편 資源民族主義를 표방하면서 시작한 OPEC 산유국들의 石油자원의 국유화조치로 인해 그동안 세계석유시장을 지배해 왔던 메이저의 퇴진에 따라 石油의 공급형태가 장기공급계약에서 비교적 단기공급계약 또는 현물거래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주체도 세분화되었다.

또한 精製施設의 고도화는 重質原油의 정제가치를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輕質원유와 重質원유간의 가격차이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나, OPEC는 基準油價만을 결정하였을 뿐, 유종간의 가격차이에 대한 신속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輕質油 생산국의 판매활동은 억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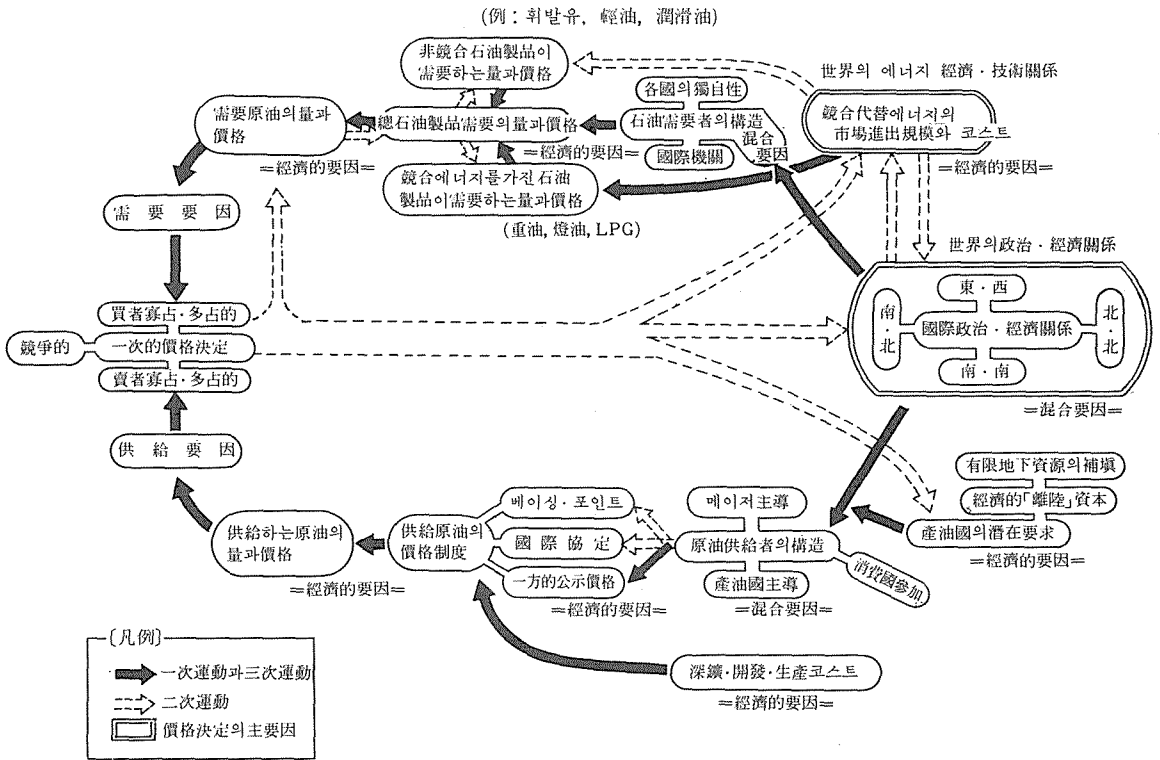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세가지의 주요요인 때문에 세계석유시장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팽배되어 왔으나, OPEC 카르텔은 회원국간의 利害대립의 여지가 많은 구조조정보다는 비교적 결정, 시행하기 용이한 產油量조정정책만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產油量쿼터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로 OPEC 產油量제한이 非OPEC 산유국의 생산증가로 상쇄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지배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둘째로 原油의 수출대상국, 국내경제여건, 石油부존여건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생산량할당은 회원국간의 利害상충을 증가시키게 되어 독점적 행사를 제한하게 되었고, 셋째로 原油의 質的 차이, 단순한 산유량만의 할당, 물리적인 감시체제의 한계성등의 요인 때문에 실질적인 產油量할당제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최근의 輕質原油가 격인하는 이상과 같은 세계석유시장의 변화가 배경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Ⅲ. 原油의 價格決定 메커니즘과 要因

原油는 石炭이나 天然가스, 우라늄등과 같이 原料나 燃料로서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 수요자의 존재와 공급자의 존재를 전제로 兩者가 만족하는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움직인다.

〈그림-3〉 原油價格 결정의 메커니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는 가격이란 얼마만큼의 시간적 경로를 거쳐 균형을 이루는 가격수준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격은 균형수준에 이르기 이전의 조정과정에 있는 가격수준이다.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요소는 경제와 사회의 動的인 발전을 반영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양자를 만족시키는 균형된 가격수준이 설정된다 해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고정될 수는 없으며, 다시 변화하여 조정과 균형의 작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原油의 가격수준도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과정에 있는 가격수준이나, 균형가격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3〉은 原油가격결정메커니즘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각각 정리한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어느 시점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 原油가격도 다음 시점에서는 점

선으로 나타나는 수요측면(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측면)의 반응을 받으며, 일정한 시간을 거쳐 공급측면으로 이어져 2차적 조정을 받아 제 3차, 제 4차의 조정과정이 전개된다.

이것을 다시 수요측면을 크게 규정하는 主因인 세계에 너지경제와 Buyer's Market 下에서는 특히 공급측면을 강하게 규정하는 主因인 세계정치와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적 추이를 정리한 것이 〈表-1〉이다. 이와 같은 圖式을 보다 구체적인 가격형성요인에 대해 살펴본 것이 〈그림-4〉이다.

이와 같은 원유가격형성을 나타낸 圖式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 ① 수요측면에서의 세계 에너지經濟(非OPEC 석유를 포함한 경합에너지의 상태)
- ② 특히 공급측면에서의 세계의 정치·경제관계(東西관계, 남북관계를 주축으로 한 국제정치·경제의 상황)이다.

〈表 - 1〉 原油價格形成的 主要因 推移

주요國際石油産業동향	需要를規定하는主因 (世界에너지·經濟)	供給(今後는수요도)을規定하는 主因(世界의政治·經濟關係)	原油의供給者構造	原油價格의決定方式
[1928年] (아크나캐리協定)		① 美國경제는 미중유의 「黃金의 20년배」말기에 해당되며, 유럽은 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한편 아시아에서는 민족독립, 해방운동의 萌芽. ② 소련 스탈린의 경제건설 5개년계획.	① 8대메이저의 고도과점 ② 원상유저 협정으로 고도의 생산·판매 체제(생산량과 가격의 결정권 장악)	美멕시코灣을 단일기준 적출지점으로 하는 베이싱 포인트제도
[1945年] (第2次大戰終戰)		①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플랜 실시 ② 동남아시아제국의 독립 ③ 中近東국가의 민족주의고양과 이스라엘 등장	① 中東원유의 대폭증산방침은 단일기준적출제를 붕괴시킴 ② 아크나캐리협정 와해(생산량과 가격결정권은 계속 메이저가 장악)	美멕시코灣에 中東灣이 추가되어 2중기준적출지점이 되었다
[1960年] (OPEC結成)		① 달러貨 약세 시작(60년10월의 金폭등) EC의 발족(59년) OECD 조인 ② 中蘇대립 격화(60년 7월) 쿠바문제의 萌芽(사탕) ③ 남북문제의 토의 본격화	① 독립계 석유회사의 등장과 공급확대로 가격하락 ② 메이저의 과점체제 약화 ③ OPEC, 가격인상 요구(가격결정권은 메이저에, 생산량결정은 에메라집)	美國은 수출여력을 상실하고 中東灣중심의 단일기준 가격제
[1971年] (비헤란協定)		① 달러貨체제의 실질적 와해, 英의 EC가입 ② 美·中共 신시대와 국제정치의 다극화 ③ 남북문제는 구체적 해결 요구된다.	① 독립계 석유회사의 등장 증가 ② 산유국 국영회사 증가 ③ 메이저의 계속 더욱 약화 ④ OPEC 가격인상에 성공 ⑤ 산유국 정부는 사업참가(가격·생산량 모두 산유국과 메이저의 교섭으로 결정)	中東灣岸-로데르담의 단일 기준 가격제
[1973年] (第1次石油危機)		① OPEC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된다 ② 자유세계, 공산권 모두 체제의 선행하여 불투명감 나타내다.	① 생산량, 가격은 산유국이 결정 ② 제2차 석유회기(1979) 이후는 원유의 직접판매도 산유국이 지배	中東灣岸-美國동해안의 기준 가격제
[1982年] (OPEC實質의分割)		① 세계경제 동서불황 발생 ② 저개발국의 누적채무 급증 ③ 보호무역화의 조짐	① OPEC주도의 원유가격 폭등으로 北海, 멕시코등 非OPEC의 원유공급 대폭 증대 ② OPEC의 공급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	各산유국이 개별적으로 가격결정

①은 純경제적 요소, ②는 정치와 경제의 혼합 요소이다.

①은 原油를 소비하려는 量과 수요를 결정하는 가격수준을 규정하는 제 1 차적 발생요인이다. ②는 原油를 공급하려는 量과 그때 요구되는 가격수준을 규정하는 제 1 차적 發生요인이다. 이 ②는 특히 수요자측의 수요행동(수요를 결정하는 量과 가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①의 세계의 에너지 경제에 있어서 石炭이 大宗의 인 비중을 차지하고 石油가 그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상태(1960년경)로서 ②가 美國주도의 세계정치경제관계가 기반을 이루고 있던 때(1960년경)는 석유수요도 탄력적이었으며, OPEC 원유의 공급구조도 메이저에 의한 베이싱 포인트제가 확립되어 왔다. 따라서 원유가격의 결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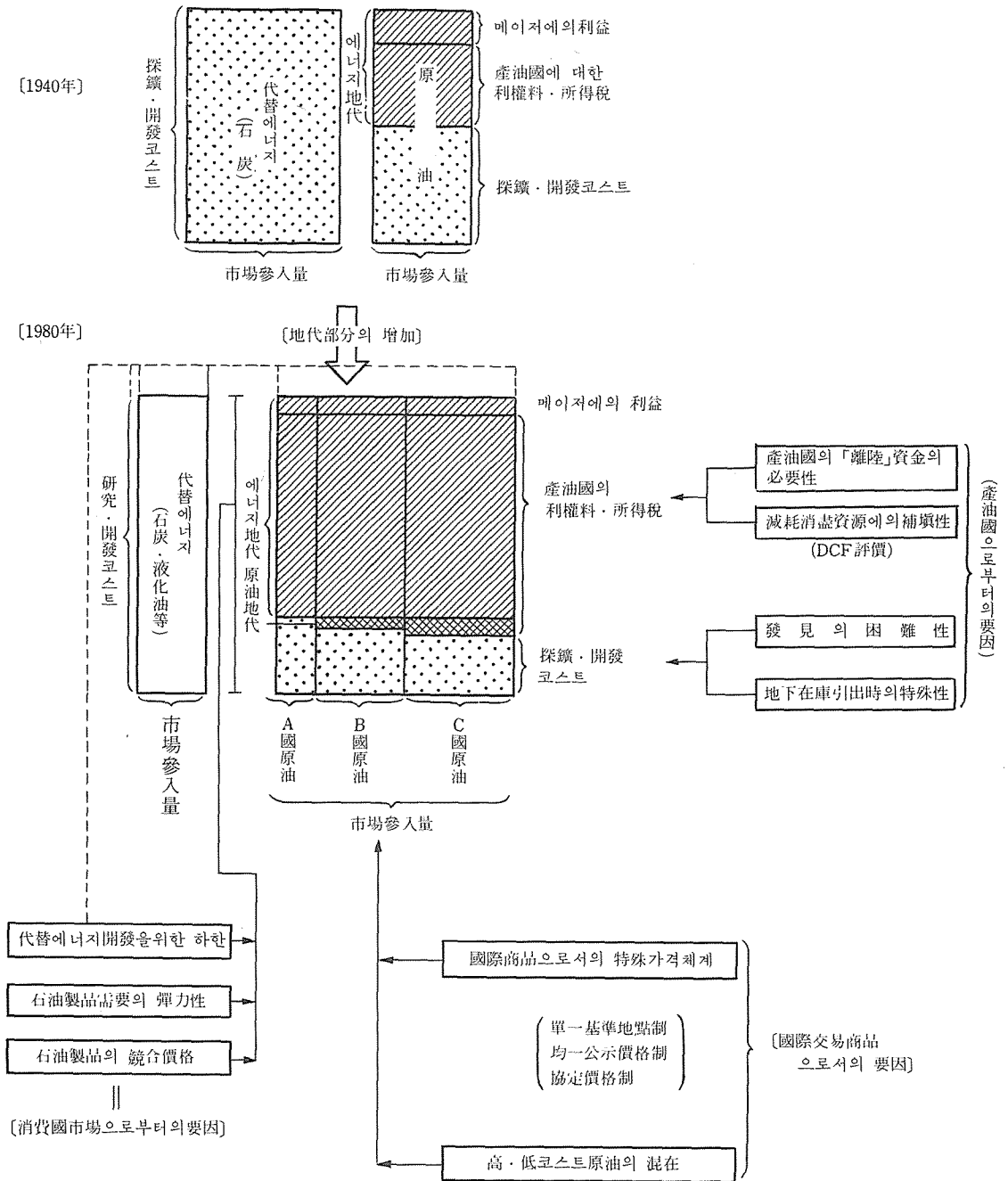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①은 石油가 大宗

의 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②는 美國의 상대적 지위약화(달러貨의 약화, 동서군사균형의 평준화, OPEC 원유의 공급도 OPEC가 주도하는 등)의 변화를 나타냈다. 따라서 原油가격의 결정도 OPEC에 의해 주도되어 2 차례의 석유회기를 가져왔다.

IV. OPEC原油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原油가격은 「수요측에서 기대하는 量과 가격수준」과 「공급측이 바라는 量과 가격수준」이 서로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機能하는 것일까. 세계 原油가격은 OPEC가 설정하는 수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OPEC原油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4〉 原油의 商品특성의 가격결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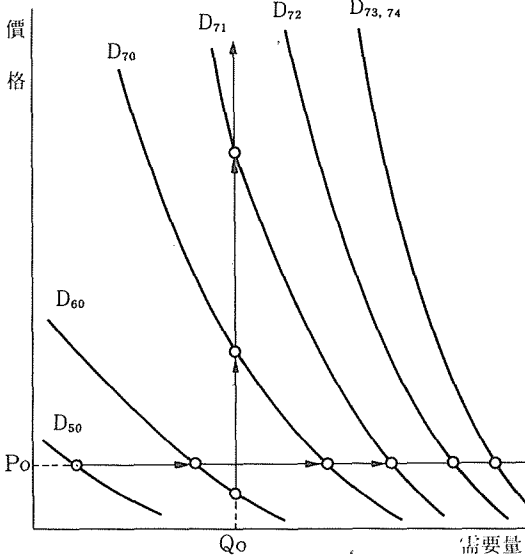
1. OPEC原油의 需要曲線

〈그림-5〉에서 OPEC原油에 대한 수요곡선 D_0 은 지난 1950년 당시의 수요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요곡선 D_0 곡선에서 $D_0 \rightarrow D_1$ 으로 가면서 석유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右上方으로 계속 움직여 갔다. 同一價格(P_0)하에서 수입량이 계속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또 同一수요량(Q_0)에서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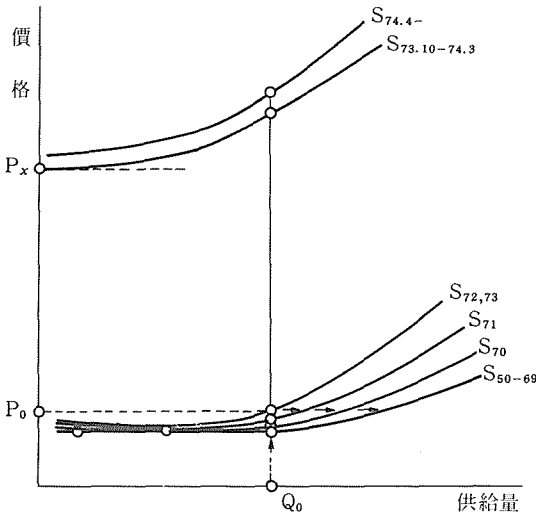
〈그림-5〉 OPEC原油의 需要曲線

D_n 은 n 年當時의 OPEC原油에 對한 需要狀態를 概念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6〉 OPEC原油의 供給曲線

S_n 은 n 年에 OPEC原油가 供給된 狀況을 概念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요증가의 결과 수요측은 보다 많은 代價(보다 비싼가격)를 지불해도 좋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석유제품을 소비국측의 산업부문이나 운수 부문에서 필요한 원료가 되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右上方으로 움직여 가면서 수요곡선이 縱型을 이루는 것(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짐)이 그 必要品化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石油가 메이저를 비롯한 석유회사의 판매확대정책으로 石炭을 몰아낸 1950년 당시 석유수요변화는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수요곡선은 비교적 平坦했는데 가격변화가 생겨도 수요량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고(특히 原油가격이 상승해도 석유수요는 감소)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의해 代替品이 없는 기초 원자재가 됨으로써 需要曲線은 움직이지 않아도 점차 縱型이 되고 있다.

2. OPEC原油의 供給曲線

〈그림-6〉은 OPEC原油의 概念的인 供給曲線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同一量(Q_0)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격은 점차 높아지며, 1973년 10월에 원유가격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한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또 同一價格에서는 점차 少量만 구매하게 되는데 특히 1973년 이후에는 어느 가격수준(P_x) 이하에서는 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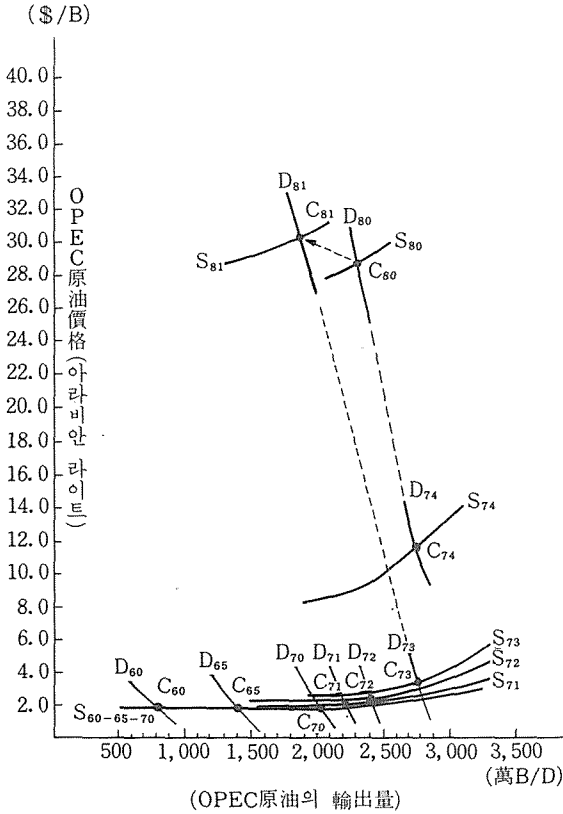
V. OPEC價格의 메커니즘

이와 같은 특색을 지닌 OPEC原油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7〉이다.

C_n 은 n 年의 가격(OPEC의 基準原油인 아라비안 라이트價格)과 수출량의 교차점(均衡點)을 나타내고 있는데, C_{60} 과 C_{65} 는 배럴당 1.8달러의 가격으로 수출량은 하루 7 백86만배럴에서 1 천4 백3만배럴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로 발견된 매장량의 크기와 낮은 개발비용으로 이 시기는 OPEC內에서 가격인하를 통한 판매 확대기운이 팽배했으며, 50~59년의 실질적인(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공급곡선을 오히려 右下했고, 증산에 따라 공급가격은 체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1960년의 OPEC 창설 이후 石油收入과 수출량의 관계에서 나타난 供給曲線을 右上경향을 유지하도록 公示價格인상의 요구, 공시가격인하의

(그림-7) OPEC原油의 價格形成
(1960年~제1차 석유위기)



저지, 比重差조정 및 利權料經費化요구의 실현에 노력한 결과 60년대말에는 右下경향을 저지하여 水平化에서 右上시키는데 성공했다.

70년의 공급곡선은 리비아의 9월 공격과 東지중해 선적의 中東灣岸의 原油공시가격의 소폭인상으로 OPEC는 서서히 독점력을 발휘하기 시작, 60년대의 공급곡선을 左上方으로 약간 움직여가고 있다.

71년과 72년에는 테헤란協定(1971. 2) 트리폴리協定(1971. 4)과 실질收入을 유지하고 명목가치를 수정한 제네바通貨調整協定(1972. 1)의 결과 左上方으로 움직이고 있다. 73년 가을에는 매달 달러減価조정(1973. 6의 新제너바通貨 변동조정협정) 조치에 의한 명목가격의 수정과 사업참가협정의 25% 참가에서 60% 참가에로의 협정으로 다시 左上方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73년 10월 16일과 74년 1월 1일의 대폭적인 原油가격 인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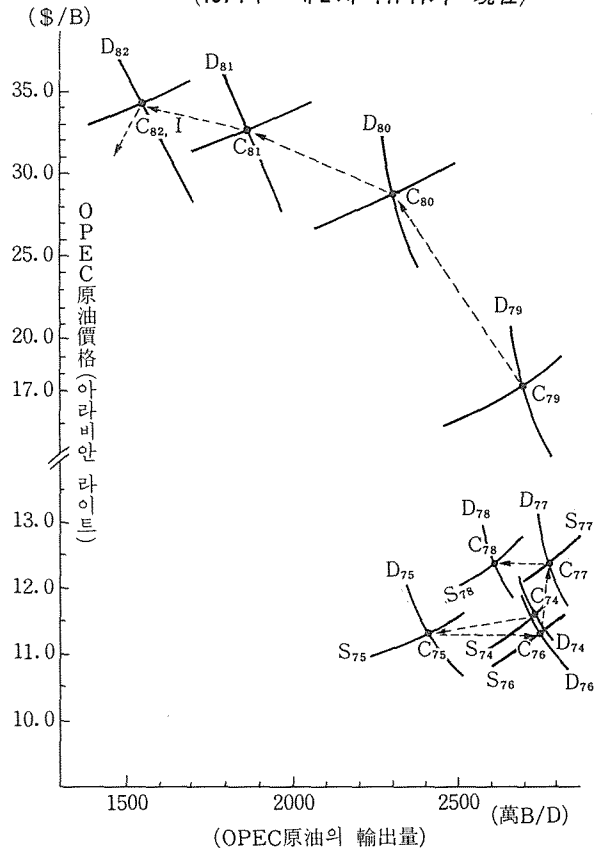
74년 이후의 공급곡선을 左上方으로 크게 움직이게 했다.

石油의 수요측이 고도성장의 꿈에 취해 수요곡선을 右上方으로, 가격탄력성을 저하시키면서 계속 움직여가는 것과 맞추어 74년의 독점력을 행사한 공급곡선의 등장으로 原油가격의 대폭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73년 수준(C73의 수출량은 C73의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소비국측이 결속하여 추진한 에너지소비절약으로 D80과 같은 수요곡선이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년말부터 일어난 이란回敎革命과 80년 9월의 이란-이라크戰爭으로 OPEC는 또 다시 독점력을 발휘하여 공급곡선을 左上方으로 움직여 배럴당 30달러선까지 原油가격을 인상시켰다.

(그림-8)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8) OPEC原油의 價格形成
(1974年~제2차 석유위기~現在)



74년의 均衡點 C_{74} 부터는 OPEC 原油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곡선이 左下方으로 움직인 결과 OPEC는 개별적으로 減産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수요감소가 큰 均衡가격은 C_{75} 로 약간 하락했다. 이 기간중 OPEC의 수출량은 73년의 2천 7백60만B/D에서 75년에는 2천 4백만B/D로 3백 60만B/D가 감소했다. 그러나 76, 77년에 세계경기 회복으로 석유수요가 증가하면서(수요곡선이 $D_{75} \rightarrow D_{76} \rightarrow D_{77}$ 로 이행) 均衡점도 C_{76}, C_{77} 로 변화했다. 78년의 수요곡선(D_{78})이 左로 움직인 것은 非OPEC 原油가 증가하고, 또 석유소비절약이 계속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79년의 OPEC 石油 수요는 경기회복과 앞으로의 不安에 대비한 사재기로 수요곡선도 D_{79} 로 右로 움직이게 되었다.

제 2차 석유위기 이후의 움직임은 $C_{79} \rightarrow C_{80} \rightarrow C_{81} \rightarrow C_{82}$ 로 均衡점의 움직임은 제 1차 석유위기 이후의 움직임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OPEC 原油에 대한 수요는 계속 떨어지면서 수요곡선도 左方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OPEC 석유수출량은 79년의 2천 6백80만B/D에서 81년에는 1천 8백50만배럴로 8백30만B/D가 감소했다. 이 감소분은 OPEC가 창설된 1960년의 전체생산량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이것은 OPEC 원유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非OPEC 산유국인 北海, 알래스카, 멕시코, 中共 등의 原油생산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가 되었으며, 또 石油代替에너지인 原子力, 石炭, LN G 도입에도 경제적 有利性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에너지절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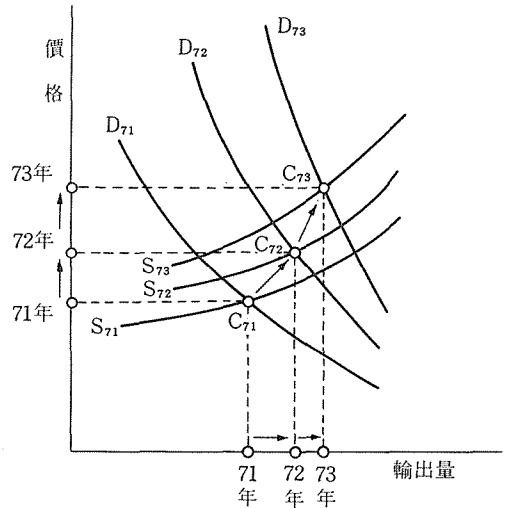
이와 같이 OPEC 原油에 경합하는 非OPEC 原油와 代替에너지가 증가함으로써 OPEC 原油의 수요곡선을 左로 움직이게 하는 한편, OPEC 원유가격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수요량은 종래보다 크게 변화하기 쉽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OPEC 價格決定의 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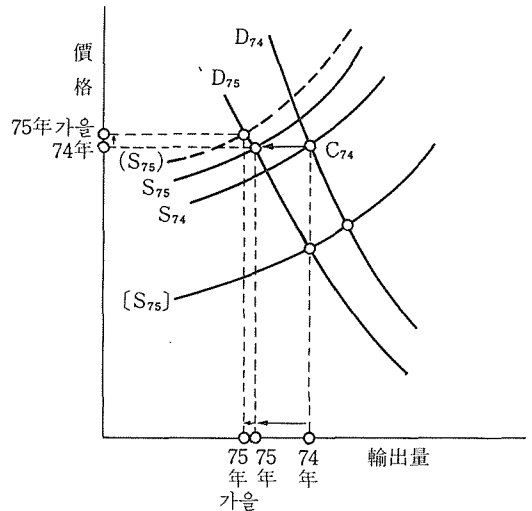
에너지 시장에서 原油의 主宗的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代替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原油는 에너지 시장에서 프라이스 리더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왔다.

또 공급자측의 구조에 눈을 돌리더라도 原油가격과 생산수준 모두 73년 가을 이후에는 產油國측에 그 결정권이 넘어갔다. 특히 제 1차적인 가격결정권은 완전히 OPEC에 있다. 메이저에 의한 세계적인 가격설정은 붕괴되고 OPEC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원유시장이 이른바 Buyer's Market 的인 양상을 띠어가고 있으나, 아직 OPEC의 막강한 힘은 관철되고 있다. 가격설정도 Buyer's Market 的인 상황에 있지만, OPEC가 독점적 價格카르텔로

〈그림-9〉 Seller's Market 下의 원유가격형성



〈그림-10〉 Buyer's Market 下의 원유가격형성



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Seller's Market란 공급부족상태로 売者의 자유재량으로 매매조건이 결정되고 買者가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배제된 채 売者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거래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공급의 과잉상태가 되어 買者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거래조건을 좌우하는 상태를 Buyer's Market라고 한다. <그림-9>는 Seller's Market, <그림-10>은 Buyer's Market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9>는 OPEC原油수요가 고도성장의 결과로 계속 伸張되는 한편, OPEC측은 공급량을 마음대로 변동하면서 가격을 인상했던 71년 이후 73년까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0>은 原油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OPEC 原油에 대한 수요곡선은 D₇₄에서 D₇₅로 움직이고(수요량 감퇴) OPEC측의 공급곡선도 74년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S₇₄에서 S₇₅로 감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年初부터 시작된 리비아, 아부다비,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의 가격인하는 (S₇₅)로 움직였음을 나타내고, 그 해 8월에 실시된 이란의 減産은 S₇₅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설정된 OPEC의 原油가격수준은 그 시점이 Seller's Market일 경우 그 수준의 유지가 용이하지만, 그 시점이 Buyer's Market일 경우에는 구매자측의 原油에 대한 평가(石油제품의 생산收率, 유허함유량, 운임등의 요소)를 가미한 선택을 받아 조정된 2차적인 가격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收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즉 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이나 노동력과 운전자본이 있으면 제품제조가 가능한 다른 사업과는 달리 原油생산의 경우는 한정된 原油매장량을 토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격설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가미되기 마련이다.

첫째는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價格은 물론 생산수준에 대해서도 資源부존량의 전체적인 有效利用을 고려한 계획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原油를 代替할 에너지의 등장시기나 그 규모 및 코스트도 고려하면서 생산(또는 가격설정) 해야 한다.

둘째는 그 자원보유국의 경제발전단계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하는 문제이다. 즉 선진공업국의 경제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원유가격의 인상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특히 OPEC 산유국의 대부분이 南의 저개발국에 속해 있다.

세번째 요인으로서 공급자측이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도 OPEC측만 그 인상폭분을 장래의 富로 축적하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관련기재나 人材 등의 양성에 있어서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하여 계속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급자가 고려하는 네번째 요인은 원유의 競合에너지시장의 참가규모와 그 코스트이다. 휘발유시장의 경우 전기자동차, 灯油시장의 경우는 도시가스난방이나 전기난방, 重油시장의 경우는 석탄, 원자력, LNG등이 해당될 것이다.

한편 수요자측, 특히 석유정제업자측은 어느 시점에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요규모와 가격수준을 전망하면서 자기의 수익을 최대화하고 최적의 원유종류의 組合을 기대한다. 이것이 수요자측 선택의 제 1기준이다.

다음에 量的으로 여유가 있는 Buyer's Market 下에 있어서는 個個의 석유제품수요에 대한 최종구매자의 요구에 합치해야 되며, 원유의 유종선택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微細하게 변한다. 物量확보가 중요해지는 전쟁이나 石油禁輸時와 같은 때에는 수요자측도 질보다 量을 중시하기 때문에 석유정제업자가 원하는 원유도 물량확보가 우선된다. Seller's Market 下에서는 売者가 우위에 서기 때문에 수요자측의 질적인 요구는 거의 무시되고 만다.

VII. 適正 石油價格

제 2차 석유위기로 부터 최근까지의 석유수급과 가격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石油가 특수한 상품이라고는 해도 결국은 마켓트 메커니즘, 또는 價格메커니즘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價格메커니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세계석유시장은 반드시 자유경쟁조건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공급寡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켓 메커니즘 또는 價格메커니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뒤늦게, 다시 말해 타임 레그현상을 보이며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 타임 레그가 경과한 이후의 石油시장형태는 석유가격에 명백한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말 기준원유가격이 피크에 도달한 후 1982년에 걸쳐 세계석유시장은 완화되기 시작해 석유가격은 실질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OPEC 기준원유가격은 인상되지 않은채 배럴당 34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산유국에서는 이미 공식판매가격이 하향수정되었으며, 또 공식판매가격이 수정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石油의 實勢價格이 실질적으로 하향수정되었다.

石油의 실세가격은 지난 82년 기간중 계속 하락했다. 그리고 실세가격하락을 追認하는 형태로 83년 봄 OPEC 런던總會의 결정으로 기준원유가격을 배럴당 5달러 인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배럴당 29달러로의 인하도 OPEC 내부 力學관계의 타협의 산물이지 석유가격의 실질적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비싼 가격수준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石油가격은 1 배럴에 얼마라면 타당한 것일까.

전문가의 試算결과는 아직도 석유가격은 비싸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즉 OPEC가 창설된 지난 6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適正석유가격은 배럴당 10달러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石油協會報 10월호 「石油價格은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참조). 결국 현재의 배럴당 29달러의 가격수준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74년의 기준원유價格을 기준으로 할 경우 83년의 理論値는 배럴당 27달러가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기준원유가격이 배럴당 34달러이었던 시기는 물론이고, 현재의 29달러 수준도 아직 비싼 상태라는 얘기이다.

또 발전용 연료로서의 石油와 석탄을 비교해 보아도 石油가격이 확실히 비싸며, 석탄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油價는 배럴당 23달러 전후까지 인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계산

상의 해답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경위를 통해 살펴보아도, 또 현 시점에서 다른 에너지와의 가격경쟁력을 기준으로 보아도 배럴당 23~27달러 정도가 適正가격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배럴당 29달러의 현행가격은 확실히 비싼 것이며, 따라서 경쟁력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현재에 있어서도 석유수요가 반드시 이와 비례하여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VIII. 맺는말

OPEC 회원국들은 공식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산유할당량을 감축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산유량감축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첫째로 회원국들은 그동안 구매자들의 장기공급계약 기피현상 때문에 現物市場판매를 증가시켜왔으나, 이로 인해 石油收入이 감소하여 정상수지 적자가 누증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現物가격의 상승이나 산유량증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산유량 증가이다.

둘째로 산유량할당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유국별 油種別 산유량할당 뿐만 아니라, 石油와의 代替性이 강한 天然가스, LPG, NGL 등의 생산량과 수출량도 할당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OPEC가 현재 약세인 석유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基準油價를 변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기준유가인하에도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종간 가격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의 現物市場가격을 보면, 아라비안 重質油와 기준원유인 아라비안 輕質油간의 가격차이가 배럴당 0.90~1.20달러 수준에 불과하나 公式價格은 아라비안 重質油가격이 배럴당 3달러 낮게 책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지난번의 기준유가 인하시, 소비국들의 租稅정책과 기금징수 등으로 소비국의 국내가격은 크게 인하되지 못함으로써 石油소비증가가 완충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OPEC가 기

□ 石油時評 □

준유가를 인하한다 해도 석유의 수요증가 보다는 소비국의 稅收증대로 흡수됨으로써 OPEC 原油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OPEC의 油價인하결정을 유보케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지난 83년 3월의 油價인하시와 현재의 상황은 변화구조상으로는 유사점이 많으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OPEC로 하여금 유가인하결정을 유보케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은 石油가격의 相對價格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배럴당 29달러의 현행가격은 아직 비싼 것이기 때문에 석유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產油国動向 □

OPEC, NGL生産을 늘리고 있다

금년말까지 OPEC의 NGL(天然가스液) 생산량이 하루 약 120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PIW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생산량은 줄어들었으나, 기타 OPEC 產油国들에서 NGL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아부다비의 경우, 지난 1983년말 이후 하루 약 35,000배럴이 늘어났으며, 인도네시아·알제리·쿠웨이트 등지에서 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非OPEC 산유국에서의 NGL 생산량은 하루 245

만배럴로 계속 불변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도 계속 NGL 생산량을 증가시켜 왔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OPEC 국가들은 아직도 NGL과 콘덴세이트(Condensate)간의 구분에 대해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산유국들은 콘덴세이트를 산유량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또 어떤 산유국들은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PIW는 NGL을 原油로부터 별도로 채취되는 기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OPEC의 LGL 생산현황

(單位：千배럴)

	1984. 7. 產油量			NGL(LPG 및 콘덴세이트**) 기타	總計	OPEC 生産쿼터
	原油	콘덴세이트*	計			
사우디아라비아	5,000	—	5,000	300	5,300	—
이 란***	2,400	—	2,400	10	2,410	2,400
이 라 크	1,095	5	1,100	5	1,105	1,200
쿠 웨 이 트***	1,100	—	1,100	70	1,170	1,050
아 부 다 비	800	—	800	100	900	1,100
두 바 이	340	—	340	25	365	
샤 르 자	6	55	61	—	61	
카 타 르	430	—	430	30	460	300
베 네 수 엘 라	1,755	105	1,860	60	1,920	1,675
나 이 지 리 아	1,190	10	1,200	—	1,200	1,300
리 비 아	1,095	5	1,100	40	1,140	1,100
인 도 네 시 아	1,255	135	1,390	70	1,460	1,300
알 제 리	550	100	650	320	970	725
가 콰 봉	160	—	160	—	160	150
에 콰 도 르	262	—	262	—	262	200
計	17,438	415	17,853	1,030	18,883	17,500

註) * : 일반적으로 산유량에 포함시키는 콘덴세이트

(資料) PIW 10/1/1984

** : 일반적으로 산유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콘덴세이트

*** : 중립지대 생산분 포함(각각 50%)